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광명시의회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항일유적지 방문

경기도시·군의장협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광 명 시 의 회

3.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항일유적지 방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 국외연수 보고서

○ 3. 1운동 및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항일유적지를 직접 방문하고 일제의 침략 만행과 우리의 독립운동사를 연구·조사하며,

○ 최근 일본의 역사왜곡 및 경제보복 문제에 결연히 대처하고, 지도자로서 선조들의 호국정신을 계승·보전하고자 함

Ⅰ 연수개요

1. 연수개요

□ 연수기간 : 2019. 8. 27(화) ~ 9. 1(일) ▷5박 6일

□ 연수국가 : 중국(상해, 연길, 하얼빈)

□ 참여인원 : 조미수 의장

□ 주요 연수내용

○ 상해 임시정부청사, 위안부 역사박물관 방문

○ 홍구 공원 및 윤봉길 기념관 방문

○ 북간도 독립운동 사적지 명동촌 탐방

○ 민족의 영산 백두산 탐방, 731부대 유적지 방문

○ 애국열사 안중근 의사 기념관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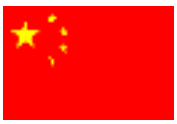
2. 연수일정

월일	방문지	교통편	시 간	주 요 일 정	비고
8/27 (화)	인천	OZ361	06:30	인천국제공항 [집결] 후 탑승수속	
			09:05	인천국제공항 출발(비행시간 2시간)	
	상해	전용차량	10:05	상해 국제공항 도착	
			12:00	입국수속 후 중식	
			13:00	상해 임시정부청사 방문	
			14:00	위안부 역사박물관 탐방	
			15:30	영경방 골목 견학	
			18:00	석식 후 호텔 투숙	
				HOTEL : 대화 홀리데이 호텔	
8/28 (수)	상해	전용차량	07:00	호텔 조식 후	
			10:00	홍구 공원 및 윤봉길 기념관 방문	
			13:00	중식 후 공항 이동	
		MU5651	15:15	상해 공항 출발(비행시간 3시간)	
	연길	전용차량	18:15	연길 공항 도착	
			19:00	진달래 광장 견학	
			19:30	석식 후 호텔 투숙	
				HOTEL : 대화 홀리데이 호텔	
8/29 (목)	연길	전용차량	07:00	호텔 조식 후	
			08:00	도문으로 이동(약 1시간 소요)	
			09:00	두만강 접경지대 탐방(뗏목 현장체험)	
				봉오동 전투 유적지 견학	
			11:00	용정으로 이동(약 1시간 30분 소요)	
			13:00	용정 우리역사 및 애국지사 유적지 탐방	
			14:30	명동촌으로 이동(약 20분 소요)	
			15:00	명동촌 우리역사 및 애국지사 유적지 탐방	
			16:00	이도백하로 이동(약 3시간 소요)	
	이도백하		19:00	석식 후 호텔 투숙	
				HOTEL : 다이너스티 호텔	

8/30 (금)	이도백하	전용차량	07:00	호텔 조식 후	
			08:00	백두산 북파로 이동(약 40분 소요)	
	백두산		09:00	민족의 영산 백두산 탐방	
			14:00	연길로 이동(약 3시간 30분 소요)	
	연길		17:30	연길 재래시장 견학	
			19:00	석식 후 호텔투숙	
				HOTEL : 연길 국제 호텔	
8/31 (토)	연길	전용차량	07:00	호텔 조식 후	
			08:30	열차역으로 이동	
		열차	09:28	연길 서역 출발	
	하얼빈	전용차량	13:29	하얼빈 서역 도착	
			15:00	731부대 유적지 방문	
			16:00	하얼빈 문화 탐방	
			18:00	석식 후 호텔 투숙	
				HOTEL : 송북 샹그릴라 호텔	
9/1 (일)	하얼빈	전용차량	07:00	호텔 조식 후	
			09:00	애국열사 안중근 의사 기념관 방문	
			12:30	공항으로 이동	
			14:30	하얼빈 공항 출발	
	인천	OZ340	17:50	인천 국제공항 도착	

II 방문지역

1. 방문국 현황



중국(CHINA)

① 인 구 : 14억 2,006만 2,022명(세계1위)
② 인 종 : 한족(91.5%) 및 55개 소수민족(8.5%)
※ 조선족 183만여명(소수민족의 1.6%)
③ 면 적 : 9억 6천만 740ha(서계4위, 한반도의 약44배)
④ 수 도 : 북경(北京)
⑤ 언 어 : 보통화
⑥ 시 차 : 우리나라보다 1시간 늦음
⑦ 기 후 : 다양하게 나타남(최저기온 영하30도 ~ 최고기온 영상35도)
⑧ 정치체제 : 노농연맹에 기초한 인민민주독재의 사회주의 국가

2. 방문도시 현황

□ 상하이(上海)

○ 중국 양쯔강 하구에 있는 중국 최대 도시
○ 중국의 4대 직할시 가운데 하나로 중요한 공업기지이며, 항구와 무역, 과학기술, 정보, 금융의 중심지
○ 국제화와 현대화가 이루어진 대도시이자 중국의 대외 개방 창구이며, 주요 수출입 국경 출입구

□ 연　길(延吉)

○ 중국 길림성 동부에 위치한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중심도시

○ 중국 조선족의 문화 중심지이며, 주변 농업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집산지

○ 18~19세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였으며, 1909년 청일조약 이후 도시가 발달되기 시작

○ 옌볜대학, 사범학교 등의 교육시설이 있으며, 한국어로 행하는 교육방송, 출판사 등도 있다.

□ 하얼빈(哈爾濱)

중국 둥베이(東北) 지방 헤이룽장 성(黑龍江省)의 성도(省都). 원래 쑹화 강(松花江) 유역의 어촌이었는데 1903년 러시아가 동청 철도(東淸鐵道)를 건설하는 기지로 만들면서 도시로 발전하였다. 지명은 만주어로 '그물을 말리는 곳'이라는 뜻이다. 여진어로는 '명예'를 뜻한다. 이 곳은 옛날부터 러시아 인이 개발했기 때문에 러시아 인이 중국인과 함께 큰 비중을 차지한다. 밀, 콩의 집산지로 유명하며 1950년 이후 급속하게 공업 도시로 발전하였다. 동력 공업이 발달하여 중국 최대의 수력 발전을 이용한 전기 공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정밀 기계·금속·비료 공업 등도 성하다. 시가지는 쑹화 강(松花江)의 남쪽 연안을 중심으로 하얼빈 역을 따라 바둑판상으로 발달하였다. 특히 1909년 안중근 의사가 일본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사살한 곳으로 유명하다.

III 방문지역 및 주요연수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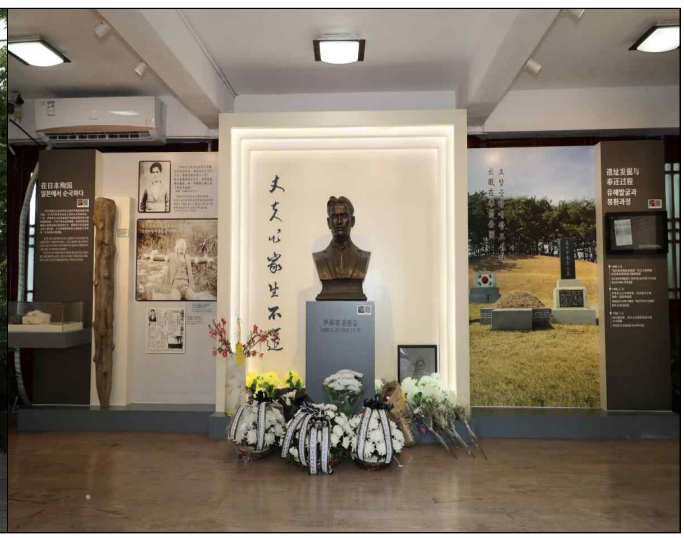
□ 상해임시정부청사

임시정부는 1919년 4월 상해의 프랑스조계에서 수립되었다. 이후 1932년 4월 윤봉길의사의 홍구공원의거를 계기로 상해를 떠나 항주로 이전할 때까지 임시정부는 만 13년 동안 상해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임시정부가 수립된 장소나 청사의 위치는 분명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김신부로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지만, 그 번지수를 알지 못한다. 임시정부의 청사도 한 두 곳이 아니었다. 여러 곳으로 옮겼고, 현재 확인된 것만도 12차례 이상 된다. 수립 직후 임시정부 청사는 태극기를 게양할 정도로 공개적이었지만, 1919년 10월 프랑스 조계당국으로부터 폐쇄조치를 당하였다. 이후 임시정부 청사는 개인의 집이나 기관에 사무소를 두었다. 여러 곳으로 옮겨 다니다가 안정적인 청사를 마련한 것은 1926년 3월이었다. 백래니몽 마랑로 보경리 4호에 청사를 마련한 것이다. 이후 임시정부경제후원회가 조직되어 이를 유지하였고, 1932년 5월 항주로 이전할 때까지 6년 동안 이곳에서 활동하였다. 임시정부가 청사로 사용한 보경리 4호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1990년 상해시 노만구에서 문물보호단위 제174호로 지정하였고, 1993년 4월 현지에 원형대로 복원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구지전람관'으로 꾸며 놓았다. 이후 2001년 주변을 매입하여 전시관을 확장, 재개관하였다.

□ 홍구 공원 / 윤봉길 기념관

노신공원(魯迅公園)이라고도 불리는 이 공원 안에는 노신의 묘와 기념관이 위치해 있다. 기념관은 노신의 고향인 소흥성의 건축 양식을 따라 지어졌으며, 기념관 안에는 작가의 필체가 담긴 원고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한국인에게는 1932년 4월 29일 윤봉길의사의 의거 현장으로 기억되는 곳으로, 최근에 윤의사의 항거를 기념하는 기념탑이 세워졌다.

당시 중국 내 항일운동을 이끌었던 장개석(장제스)이 "중국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단 한 명의 조선 청년이 해냈다"며 극찬했고, 이후 임시정부에 전폭적인 지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만들었다. 당시 윤봉길 의사의 나이는 스물다섯이었다.



그는 "사내 대장부는 집을 나가 뜻을 이루기 전에는 집에 돌아오지 않는다" 라는 말을 남기고 독립운동을 시작했다. 채소 장사를 하며 당시 독립운동의 본거지였던 상해를 찾은 윤봉길. 김구를 만나 한인애국단에 가입하고, 이봉창 의사처럼 폭탄 의거를 계획한다. 목표는 천황의 생일과 상해사변 전승 기념행사에서 폭탄을 투척하는 것. 한치의 오차도 없는 치밀한 계획 속에 1932년 4월 29일, 운명의 날이 밝아오자 "제게는 이제 한 시간 밖에 소용없는 물건"이라며 김구의 시계와 자신의 시계를 맞바꿨다. 이후 참석한 기념행사에서 폭탄을 던져 시라카와 대장을 척살하는 등 일제의 최고위층을 처단했다. 중국 정부도 항일 운동의 대명사였던 윤봉길을 기려 노신공원 내에 윤봉길 기념관을 건립했는데, 한국어와 중국어로 윤봉길 의사의 생애와 활약상에 대해 소개하고 있었다. 노신공원에서 가장 놀랐던 점은 무엇보다도 현지 중국인들도 윤봉길 의사를 기억한다는 점. 윤봉길 의사의 의거 장소로 추정되는 곳에 한 중국인이 붓글씨로 '어서오세요. 영원히 기념 당대 영웅 윤봉길 의사 정의 필승'을 적고 있었다.

□ 봉오동 전투 유적지

'봉오 저수지'. 바로 1920년 홍범도 장군이 이끈 독립군이 일본 정규군을 크게 무찌른 봉오동 전투가 일어난 곳이다. 봉오동 전투는 중국 영토인 만주지역에서 한국 독립군과 일본군 사이에 본격적으로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전투였다. 봉오동 전투가 일어난 골짜기는 현재 중국 정부로부터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일반인의 출입이 차단돼 있었다.

우리 역사에 너무도 중요한 곳을 중국까지 와서 가보지도 못하고 먼 발치에서 바라만 봐야 하다니 안타까움이 한 없이 밀려왔다. 골짜기 안에는 봉오동 전투를 기념하는 비석이 세워져 있다.

□ 명동촌

명동촌은 중국 길림성 용정시 용정에서 서남쪽으로 15㎞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다. 문치정·남위언·김하규·김약연 등 네 집안이 집단으로 이주하여 형성하였다. 1899년~1905년에 형성되었는데, 용암·장재·대룡·영암 등을 묶어 명동촌이라고 부르며, 주변의 소룡동·풍락동·들미동·중왕동·상중왕동 등을 포함하여 명동촌이라고도 한다. 1910~1920년대 중국 북간도 지역 한인의 문화교육운동 중심지였다. 명동촌이 자리한 곳의 원래 이름은 '비둘기 바위'라는 뜻을 지닌 '부걸라재(鶻鴿磴子)'였다. 그 뒤 김약연 등이 이곳을 '동방, 곧 한반도를 밝히는 곳'으로 만들고자 '명동촌'이라고 이름하였다.

1899년 2월 18일에 문치정(文治政) 집안의 40명, 김하규(金河奎) 집안의 63명, 김약연(金躍淵, 1868~1942) 집안의 31명, 남위언(南葦彦) 집안의 7명, 안내자 김항덕 등 142명이 이상촌 건설과 인재교육 등을 목적으로 북간도 부걸라재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부걸라재를 '명동촌'이라고 이름하고는, 부걸라재 일대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였다. 그 뒤 공동으로 부담하여 학전(學田)을 마련하였고, 학전에서 나오는 수입을 교육 기금으로 사용하였다. 문치정 집안은 동구(東溝), 김하규 집안은 대사동(大蛇洞, 龍洞), 김약연 집안은 선봉(先鋒) 남쪽 기슭인 장재촌(長財村), 남위언 집안은 중영촌(中英村)에 각각 정착하였다. 1900년에는 윤동주(尹東柱)의 증조부인 윤재옥도 가족을 이끌고 용암동(龍岩洞, 학교촌)으로 이주하였다. 그리하여 1899년~1905년에 용암·장재·대룡·영암 등 4곳의 대표적인 마을이 명동촌이라고 불렸고, 주변의 소룡동·풍락동·들미동·중왕동·상중왕동 등도 점차 명동촌의 외연에 포함되었다. 한편 김약연 등은 명동촌을 기울어 가는 조선의 운명을 바로 세울 인재를 기르는 곳으로 만들고자 하였다. 1901년에 김약연은 장재촌에 '규암재(圭岩齋)'를 세웠고, 남위언은 상중영촌에 '오룡재(五龍齋)'를 두었으며, 김하규는 대룡동에 '소암재(素岩齋)'라는 서재를 각각

건립하여 학동에게 학문을 가르쳤다. 1908년 4월 27일에는 김약연 등이 여러 서재를 합하여 명동서숙(明東書塾)을 설립하였다. 명동서숙은 서전서숙(瑞甸書塾)에서 근무하였던 교사들을 초빙하여 그 맥을 이어갔다. 그 뒤 1909년에 명동서숙은 명동학교로 바뀌었고, 1910년에는 명동중학으로 발전하였으며, 1911년에는 명동여학교가 설립되어, 북간도 지역 민족교육운동의 본산으로 자리하였다.

아울러 1909년에 명동학교 교무주임 정재면(鄭載冕) 등이 김약연 등의 협조를 받아 명동교회를 세웠다. 이 교회는 700여 명의 명동촌 남자와 여자가 모여 부흥회를 열 정도로 발전하였다. 명동촌은 명동교회를 통해서 유교 공동체 사회에서 근대 기독교 문화 공동체로 변화하였다.

현재 중국 길림성 용정시정부는 명동촌을 중국 조선족 역사문화를 대표하는 관광명소로 건설하려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011년에는 명동학교가 복원되었고, 2012년 8월에는 '중국 조선족 애국시인 윤동주의 생가'라는 이름으로 윤동주 생가와 명동교회를 포함한 주변 지역이 새롭게 단장되었으며, '윤동주전람관'도 신축되었다.

□ 731부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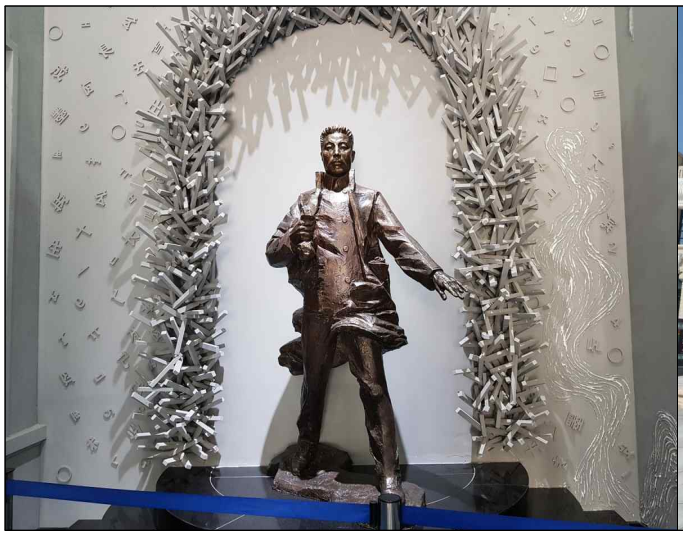
1939년 이시이 시로가 창설한 생화학 실험 기지로, 하얼빈 근교에 위치해 있다. 생체실험 대상은 주로 한국, 중국, 러시아, 영국 포로들이었다. 전쟁 기간동안 이곳에서 실험으로 희생된 사람 수는 약 4,000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 부대가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80년대 초 한 일본기자에 의해서이며, 그 이전까지는 의학실험 자료를 건네받는 대가로 이시이 시로의 만행을 면죄한 미국만이 알고 있었던 극비사항에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한다.
그 당시 일본인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한국인, 중국인,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실험을 자행하였는지 정리되어 있다. 다시 한 번 인류의 비극을 느끼고 반성하게 된다.

□ 안중근 의사 기념관

1909년 10월 26일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현장인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역에 위치한 기념관이다. 안 의사는 1909년 10월 조선 침략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무장관과 회담하기 위하여 만주 하얼빈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10월 26일 일본인으로 가장해 하얼빈역에 잠입했다. 안 의사는 러시아 재무장관 코코프체프와 열차회담을 마치고 역에서 러시아 장교단을 사열하던 이토 히로부미에게 3발의 총격을 가해 사살했다. 안중근 기념관은 당시 안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한 위치 바로 앞의 귀빈용 대합실을 개조해 2014년 1월 개관했다. 이곳은 2013년 6월 베이징 한·중 정상회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안 의사의 거사 장소에 표지석을 놓아줄 것을 요청한 데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동의하며 건립됐다. 2015년, 2016년에는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등이 거사일에 맞춰 이곳에서 추모식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7년 3월 하얼빈역이 개축 공사에 돌입하며 기념관이 돌연 철거되었고, 이후 하얼빈시 조선민족예술관에 임시 이전되었다가 2019년 3월 30일 2년 만에 재개관했다.

기념관은 하얼빈역 남쪽 광장 역사 주 출입구의 왼쪽 측면에 위치해 있으며 2019년 재개관으로 면적이 종전의 두 배 규모로 확장됐다. 기념관 입구에는 안 의사의 전신 동상이 세워져 있고, 동상 위에는 거사 시각인 9시 30분에 멈춘 시계 조형물이 놓여 있다. 내부에는 안 의사의 생애와 사상, 의거에 대한 자료와 한국어·중국어 설명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특히 전시관 한쪽 끝의 통유리창을 통해 안 의사가 이토를 사살한 1번 플랫폼과 저격 장소 표식을 직접 볼 수 있다.



Ⅳ 연수결과 총평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배우고 익혀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되새기고자 한다.

대한민국 독립군은 중국 동북지역을 무대로 곳곳에서 일본군과 투쟁함으로 우리 민족의 자주 독립을 역량을 세계에 전하였으며, 중국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하여 국가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절박한 상황에서도 다양한 항일독립운동을 전개한 것을 통해 우리민족의 창의성과 저력을 볼 수 있었으며, 또한 여러 노선과 이념으로 전개된 독립운동은 갈등과 대립도 있었지만 궁극적으로 연대와 통일을 지향하여 8.15광복을 맞이할 수 있었다. 우리의 자랑스러운 항일 독립운동사는 한국근대사의 중심이고 민족 역사의 미래를 이끌어 나아갈 정신적 동력이라고 생각한다.

중국 상하이에만도 군인을 위한 위안소가 170여개가 있었다고 한다. 생각만 하여도 몸서리가 친다. 성노예를 미화하여 부른 위안부, 대한민국 여성이 얼마나 많은 착취와 억압이 있었는가? 여성으로서 평생 눈물과 한으로 살아온 그들의 외침에 아직도 일본은 반성과 사과가 없다.

1919년 3.1운동을 정점으로 조직적 독립운동을 펼치기 위하여 임시정부 수립은 필요 불가분이었을 것이다. 지금은 상하이 임시정부청사를 방문할 수 있으나, 2,~3년 후에는 상하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안타깝다. 우리 항일 독립운동가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지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대한민국 정부 외교부가 이 문제를 잘 풀었으면 한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린 나이에 나라를 위하여 사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한 이들이 있었기에 지금 내가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 독립군 최초로 승리한 봉오동 전투 유적지도 보고 북간도의 독립운동 사적지인 명동학교와 윤봉길 시인의 생가를 보면서 난 애국애족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나 깊은 생각에 잠겨본다. 민중을 일깨우는 것은 역시 교육이라고 생각하셨나보다. 김약연 선생은 북간도에서 명동학교 설립을 하여 청년들을 모아서 낮에 농사짓고 밤에는 공부를 시키며 각종 교육계몽 사업을 벌여 한인동포들의 자조자립과 협동정신을 고취시키고 동지적 유대의 민족적 일체감을 조성하였으며 민족교육과 독립사상 고취에 정성을 다하여 민족의 미래를 준비하여 갔다. 1918년 1월 미국대통령 윌슨이 민족자결주의 천명하고 그 해 제 1차 세계대전이 종결되면서 김약연 선생님을 중심으로 독립선언계획을 추진하여 만주와 노령의 독립운동단체들이 중심이 되어 1918년 무오년 음력 12월 무오독립선언서를 발표한 것이 재일한국 유학생 2.8독립선언과 3.1독립선언에 기폭제가 된 것이었다.

하얼빈 731 부대가 있었던 곳을 전시관으로 만든 중국은 일본의 잔인함을 알리는 곳으로 전쟁의 비극과 아픔을 한 번 더 알 수 있었던 장소였다. 세균무기를 개발하였던 하얼빈 731부대는 영화로 보고 말로 들었던 상상 이상의 부대였다. 그 피해는 아직 까지 존재하고 있었다. 대한민국은 하얼빈 731부대 희생 국가의 하나였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했던 하얼빈 역에 위치한 안중근 의사기념관을 둘러보면서 후손으로 죄송하고 부끄러웠다.

두만강 접경지대의 뗏목체험과 백두산 방문은 한반도 이북을 이렇게밖에 갈 수 없는 우리 처지를 안타깝게 하였다. 한반도를 통하여 갈 수 있는 백두산을 상상하면서 미래의 대한민국을 머리에 그려본다.